

# 스티로폴 재활용률 40%내 진입

- 올해 상반기, 40.2%인 7천632톤 재활용 -



협회는 올해를 스티로폴 회수·재활용 정착의 해로 정하고 스티로폴 재활용률의 목표를 38%로 잡았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스티로폴의 재활용률은 목표를 상회하여 40%대에 진입, 지난해 36.3%에서 40.2%로 크게 증가 했다.

올해 상반기 페스티로폴의 발생량은 총 1만8천983톤으로 그중 40.2%인 7천632톤이 재활용되었으며 재활용된 페스티로폴은 재생수지 5천562톤(72.9%), 경량폴 1천184톤(15.5%), 접착제 886톤(11.6%) 등으로 재생되었다. 또한 재생수지 2천600여톤은 중국 등 해외로 수출되어 약 91만 달러의 외화획득에도 공헌하였다. (표 참조) 이는 페스티로폴 총발생량 2만330톤 중 7천350톤을 재활용해 36.2%의 재활용률을 기록했던 지난해 상반기 실적보다 4% 증가한 수치다.

스티로폴의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30.2%(97년 기준), 유럽 전체는 38.71%(96년 기준)의 재활용률을 보였는데, 우리나라도 올해 상반기 재활용률이 40.2%를 기록하면서 스티로폴 재활용 산업만큼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임을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 협회는 '98년 상반기 동안 스티로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우드랜드, 한림화학, 한진합성목재 등 재생업체의 환경마크 인증 획득을 지원했으며, 농산물 포장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 스티로폴 상자 사용실태를 담은 사진자료집도 발간했다.

'바다의 날' 즈음에는 전남 고흥군에서 스티로폴 폐부자 수거처리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전국 지자체에 감용기 구입비의 일부인 2억8천3백만원 지원, 직영 회수 차량 운영, 재생품 수출선 확보, 재생품 수요확대 세미나 개최 및 참가 등 스티로폴 재활용 확산을 위해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난 6월 '환경의 날'에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환경상 대상도 수여한 바 있다.

▼ '98 상반기 페스티로폴 배출처별 발생량

구분	전기·전자 업체	농수산 시장	백화점/ 유통	가전 대리점	가정/ 일반업소	일반기업	기타	계
발생량 (톤)	2,298	3,981	2,828	3,380	2,493	1,730	2,273	18,983

▼ 용도별 재활용량 : 7,632톤(재활용률 : 40.2%)

구분	재생수지	경량 콘크리트	접착제 원료	계
재활용량(톤)	5,562	1,184	886	7,632
백분율	72.9%	15.5%	11.6%	100%
재생품 사용 용도	합성목재 욕실발판 사선액자 창호틀 심재 비디오테이프 장난감, 화분 조립식 벽돌	경량벽돌 경량인방 건물바닥재	종이코팅제 섬유코팅제 신발접착제	